

# 사유, 사색, 성찰... 삶의 든든한 생존무기

## 검색의 시대 사유의 회복

법인 스님 지음 | 불광 펴냄 | 1만 4천원



스마트폰이 발달함에 따라 사람들 습관이 바뀌고 있다. 지하철이건 버스안이건 공공장소에서 검색하는 이들을 쉽게 목격한다. 이렇게 되면 머릿속에 단순 정보들은 늘어날 수 있지만, 자신을 돌아보고 사색하는 사유의 능력은 저하된다. 사유를 잃어간다는 것은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능력을 상실한 것과 다름이 없다.

스마트폰이 발달함에 따라 사람들 습관이 바뀌고 있다. 지하철이건 버스안이건 공공장소에서 검색하는 이들을 쉽게 목격한다. 이렇게 되면 머릿속에 단순 정보들은 늘어날 수 있지만, 자신을 돌아보고 사색하는 사유의 능력은 저하된다. 사유를 잃어간다는 것은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능력을 상실한 것과 다름이 없다.

다독가, 따뜻한 직설가, 공부하는 스님으로 통하는 법인 스님은 이 책에서 '검색'과 관련된 키워드인 경직, 고착된 생각서 벗어나 활발히 움직이는 내 머릿속 '사유'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싶었다. 그래서 펴낸 책이 바로 <검색의 시대, 사유의 회복>이다. 이 책에서 스님은 어떻게 생각하며 살 것인가에 대해 진지하고 성실하게 답한다.

'스님'은 사유 전문가다. 수행자로서 모든 일상이 사유와 공부에 맞춰져 있어서다. 법인 스님은 그 속에서 체득한 사유의 열매를 그동안 세상과 나눠 왔다. 세상의 고민에 대한 날카로운 진단과 따뜻한 처방으로, 청년들 사이에서 '병' 주고 '약' 주는 스님으로 통한다. 이 책에서 스님은 자신의 '사(思) 생활'을 들려주며, 늘 생각하고 성찰해 '헛것'에 홀려 살지 말 것을 '직설'과 '공감'으로 변할 것을 권한다. 외부로부터의 자극에 대한 무비판적인 수용이 아닌 내적인 성찰을 통해 마음을 돌보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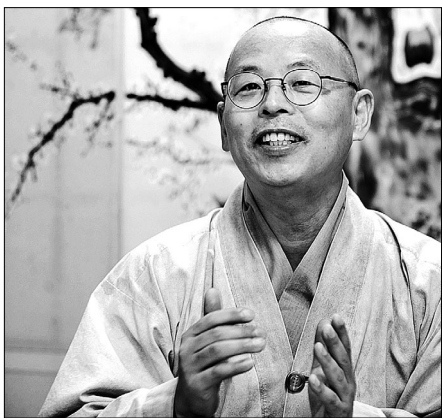
사유, 사색, 성찰이야말로 오늘을 살아가는 가장 든든한 생존의 무기임을 이 책에서

스님은 강조한다. 또한 스님은 말한다.

"붓다는 제자들에게 "나(붓다)의 말도 의심하라."고 말했습니다. 사유하며, 생각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을 학살한 아이히만의 과거를 조사했더니 무척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왜 엄청난 죄를 저질렀을까요. 바로 '사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악을 인식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는 조직의 명령을 성실하게 따랐을 뿐이지만, '사유하지 않은 죄'를 범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 일상에서도 벌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다양하게 생각하세요.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세뇌당한 관습적 사고와 태도를 버리고 열린 눈으로 세상을 크게 봐야 합니다."

이 책에 나온 칼럼식 글들은 주로 한겨레 신문과 경향신문 등에 연재한 것을 묶은 것이다. 논조는 합리적인 의식과 정직한 성찰로 모아진다. 우선, 지금 불안하고 행복하지 않다면 나를 둘러싼 모든 것들에 대해 의심하고 성찰해 보라고 스님은 조언한다. 행복의 조건, 사랑의 기준, 성공의 개념... 등등. 우리 삶이 힘들고 괴로운 이유는 이런 첫 단추, '조건과 기준, 개념'이 잘못됐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여기에 속도와 성장을 목표로 개인을 도구화하고 소모품으로 취급하는 국가권력과 기업, 학교 등 사회 구조도 개인의 불행에 원인을 제공한다는 점도 지적한다. 사회는 개인이 살아남기 위한 특정한 삶의 방식을 강요하기 때문이다. 내 삶의 방향타가 사회의 요구대로 흘러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에 대한 냉엄한 진단도 스스로 진단해 보라고 스님은 말한다. "내 삶의 방향은 제대로 잡았는가? 나는 지금 나의 삶을 눈치 보며 흉내 내고 있지 않은가?"라고

이 책은 총 4장으로 구성돼 있다. 제 1장 '검색의 시대, 사유의 회복' 편에서는 SNS나 온갖 스마트폰이 발달한 현대



## 사유, 만남, 반성, 삶 등 4주제 구성 사유전문가 사(思)생활 비법 10 소개 '삶 바꾸는 것 모두 '생각의 힘' 달려'

사회는 검색을 통해 많은 정보와 지식을 알게 되지만,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읽으면서 점점 자기만의 생각법을 잃어간다고 충고하는 내용이다. 스님은 오히려 많이 아는 시대에 적게 생각하고, 많이 아는 시대에 사고가 협소해지는 이른바, '검색의 시대', 사유가 중요해지는 이유를 설명한다.

2장 '쉽지 않지만 가야만 하는 길을 선택하라'에서는 <안도현의 연어> <비노바 바

베 평전> <김예슬 선언>의 독후감을 소개한다. 화려한 삶을 버리고 소외된 이들과 함께 살아간 비노바 바베에게선 삶의 가치를, 대학을 거부하면서 수동적 삶의 안병을 고한 김예슬을 통해 서는 스스로 선택한 삶에 대해 이야기한다.

3장은 만남이 주제다. 이 장에서 스님은 나,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만남들이 아름다울 수 있는 길을 모색한다. 그 길은 세상에 대한 연민과 자애에서 시작한다는 것이 스님의 전언이다. 마지막 4장 '스님의 반성문'을 읽다보면 고개가 절로 숙여진다. 수행자로서, 세속화된 종교에 대한 반성문들이다. 해탈과 천국에 이르는 길은 오직 깨어 있는 사유와 성찰로써만이 가능하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또한 '깨달음이 먼저인가, 자비가 먼저인가'라는 물음에 새는 양 날개로 날아간다는 비유, 가톨릭의 성 프란치스코 기도문을 받아심경으로 치환해 모든 종교의 목적이 자비에 있음을 보여 준다.

종교의 본질에 대한 스님의 마지막 말은 책장을 덮고 난 뒤에도 긴 여운을 남긴다. "종교는 삶에 지친 사람들의 위로처이다. 힘없는 사람들의 의지처이다. 종교는 아무 힘도 없으므로 해서 가장 특별한 힘을 갖는다."

김주일 기자

## 법인 스님의 사(思)생활 비법 10

1. 행복하고 좋아 보이는 것, 모두가 동의한 것에 대해 비판적으로 뒤집어보라.
2. 삶의 변화는 익숙함과 낯선 것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데서 시작한다.
3. 위로 받기 전에 냉엄하게 스스로의 문제를 진단해 보라.
4. 모호하게 말하지 마라.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말하라.
5. 나의 말도 의심하고 한 번 더 헤아려 보라.
6. 만족과 감사의 기도만이 나의 최선인가?
7. 이미지와 감성에 속지 마라.
8. 물어라. 묻지 않으면 길은 열리지 않는다.
9. 생각 그리고 사랑, 연습하면 무르익는다.
10. 해탈과 천국은 '지금, 바로, 여기'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 부부 관계는 남남 모인 '물과 기름' ... 서로 인정하고 도우며 살아야

## 붓다가 말하는 인간관계의 지혜

타기미타이슈 지음 | 원영 옮김  
문예출판사 펴냄 | 1만 2천원



불교의 여러 경전 중 특히 윤리설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육방예경>을 통해 평화로운 인간관계를 유지하며 행복하게 살기 위한 방법을 모색한다. 친구

와 가족, 직장 동료, 스승과 제자, 사업주와 직원 등 우리가 살아가며 반드시 맺게 되는 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각각의 관계에서 갖춰야 할 마음가짐과 예의에 대해 깨달음의 지혜를 알려준다.

특히 저자는 부부 관계의 중요함과 특별함을 설명하면서, 원래 남남에서 시작된 부부 관계는 '물과 기름' 같아서 죽을 때까지 섞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우니 이러한 점을 인정하고 서로 도우며 살아야 한다고 설명한다. 부처님 가르침은 친구와 가족뿐 아니라 사회에서 맺게 되는

관계에 대해서도 펼쳐진다. 현대사회의 노사관계에 대해 저자는 <육방예경> 속 붓다의 말씀을 인용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고용주는 직원에게 식사와 급료를 제공해야 하고, 병이 났을 때 간병해야 하는 등 직원을 위해 애써야 한다. 그리고 직원 또한 게으름 피우지 않고 충실하게 일해야 한다고 설한다.

우리는 매일 만나는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가져야 할까. 타인과의 관계 맺기는 현대인이 가장 어려워하는 일 중 하나다.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매순간 SNS를 통해 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지만 실제 네트워크가 아닌 현실에서 만나는 인간관계는 쉽게 맺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학교서 벌어지는 왕따 문제, 중간 소음으로 이웃 사이에 벌어지는 다툼이나 회사의 노사 갈등 등은 모두 타인과 관계 맺기가 서툴러 발생하는 일이다. 사회가 행복해지기 위해 이제 타인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고 저자는 설명한다.

2600여 년 전 부처님도 일생 동안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과 맺는 관계의 소중함에 대해 설법을 행했다. 열반에 드신 후 몇 천년이 지나 사람 사는 환경은 많이 바뀌었지만, 우리가 품는 고민은 부처님 생전과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책은 관계 맺기에 대한 붓다의 지혜를 알려주며, 친구 관계에서부터 가족 관계, 회사에서의 인간관계까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맺는 다양한 관계에 대한 붓다의 가르침을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현대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제 붓다의 가르침을 통해 이웃과의 관계 맺기를 새롭게 시도해볼 차례다.

불교경전은 부처님 말씀을 기록한 경전으로 저술된 지 몇 천년이 지났다. 그러나 이 책에서 소개하는 붓다의 가르침은 아직 낯설지 않다. 이는 부처님 가르침이 평등과 자비라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일본 최고의 불교 연구 권위자인 저자가 다양한 자료를 연구해 참신한 시각으로 불경을 해석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저자 타기미 타이슈 박사는 <슈타니파타> 같은 초기 불교 경전을 인용해 <육방예경>의 설명을 보충하며, 불교가 처음 중국에 전래돼 중국어로 번역되면서 생긴 오류들을 고대 인도어 원전과 비교해가며 꼼꼼하게 바로잡는다. 또한 저자가 NHK 라디오에서 대중을 상대로 한 강연이 이 책의 토대가 됐기 때문에 누구라도 이해할 수 있도록 쉬운 예와 간결한 문체로 서술된 점도 이 책만의 장점이다.

## 관계 두려운 시대, 佛法서 해답을

### 일본 불교학 권위자인 저자

### 불경 현대적 해석 진수 보여줘

한국어판 역시 일본 하노조대학서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았고 현재 BBS 불교방송 라디오 '아침풍경' 진행을 맡아 전문성은 물론 대중의 목소리에 익숙한 원영 스님이 번역을 함으로써 원서의 장점을 살릴 수 있었다.

이렇게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부처님 가르침이 아직도 현대인의 삶에도 중요한 지혜를 줄 수 있는 이유는 평등이라는 보편적 사상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다. 친구, 부부, 스승과 제자, 경영자와 직원의 사이가 인간으로서 평등하지 않다면 남편은 아내를 자기 소유물로 여길 것이고, 스승과 경영자는 제자와 직원을 합부로 대할 것이다. 그러나 인간은 평등하기 때문에 서로 존중하고 이해할 수 있다. 인류의 본성에 대한 부처님 가르침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깊은 깨달음과 실천의 화두를 던져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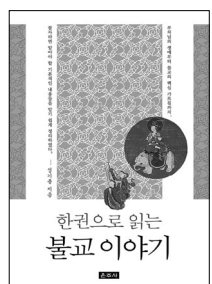
고따마 붓다는 제자 신도 중 부유한 자산가의 자식이던 실갈라 청년에게 평화로운 인간관계를 유지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법을 가르쳤다. <육방예경>은 이 가르침을 제자들이 외워서 전승한 책으로 주로 인간으로서 지겨워 할 윤리와 실생활의 지침이 담긴 초기 불교 경전이다.

김주일 기자

# 불교가 방대하고 너무 어렵다고?

## 한권으로 읽는 불교이야기

성기용 지음 | 운주사 펴냄 | 1만 5천원



부처님 생애부터 불교의 근본 가르침과 사상 체계, 나아가 불교 역사와 불교 경전, 대승불교와 생활규범에 이르기까지, 불자들이 알면 좋은 기본적인 내용

부처님 생애부터 불교의 근본 가르침과 사상 체계, 나아가 불교 역사와 불교 경전, 대승불교와 생활규범에 이르기까지, 불자들이 알면 좋은 기본적인 내용들을 한 권의 책에 담았다. 불교 전공자가 아닌 저자가 불교를 알아가는 과정에서 느낀 아쉬움, 즉 불교가 너무 방대하고 어렵

다는 사실에서, 같은 길을 걸어가는 불교 초심자들을 위해 일반 불자의 눈높이에서 불교의 핵심을 알기 쉽게 정리했다.

독실한 불자인 저자는 오랜 공직생활 후 불교를 체계적으로 공부하기 시작한다. 그 시발점은 능인선원 불교대학이다. 저자는 평생 반려자인 부인과 함께 그곳서 몇 년 동안 불교공부를 하면서, 불교를 좀더 쉽게 정리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 그렇게 느낀 이유는, 누구도 제기된 문제지만 여전히 미해결 상태인 '불교는 너무 어렵다'는 점이다. 덧붙여, 저자가 느낀 또 하나의 문제점은, '불교의 진정한 가르침이 현실 속에서 많이 왜곡돼 있다'는 점이다. 이런 문제의식 속에서 저자는 불교를 처음 배우는 초심

자 입장에서 불교에 대해 소개하고자 했다. 이 책은 그러한 노력의 산물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출간을 준비하던 중에 저자는 세상과의 인연을 다했다. 이번 책은 도반이자 반려자로 평생을 함께한 부인이 남은 원고를 정리해 출간한 것이다.

전체 8장으로 구성된 책 내용은 이렇다. 1장에서는 불교의 시작이자 그 자체인 석가모니 부처님의 생애, 즉 탄생부터 출가, 성도, 열반에 이르기까지 부처님의 전 생애를 간단히 정리했다. 2장에서는 '과연 불교의 본질은 무엇인가'라는 문제의식 속에, 불교는 인간의 종교이자 인간 평등의 종교, 행복으로 이끄는 가르침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3장은 불교의 역사를 간단히 살

펴보는데, 근본불교부터 부파불교, 대승불교, 밀교의 전파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수록했다.

이외에도 6장에서는 현재 한국불교가 지향하는 대승불교에 대해 살펴보면, 대승 불교의 특징으로 불타관, 보살, 일불승 등을 고찰하고, 핵심 교리인 공과 실천덕목인 육바라밀, 사무량심, 사십법 등에 대해 실었다.

또한 7장은 출가자나 재가자가 지켜야 할 기본적인 계율에 관한 내용인데 오계, 팔계, 사미 및 사미니 십계, 십중금계, 사십팔계, 참회 등 불자들의 생활규범을 정리했다. 마지막으로 8장은 대승사상의 전개에 대한 이야기다. 중관과 유식, 천태와 화엄, 선과 정토 사상 등 대승불교의 기본이 되는 주요 사상과 그 핵심 가르침들이 담겨 있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현 불 샵 특가판매**

# 편백나무 원목 경상(經床)

법회나, 경전강의, 개인기도 등 법당 및 가정에서 불자들에게의 수행과 함께 합니다.

**경상(經床)**  
불교경전을 얹어놓고 읽는데 사용하는 책상. 법당과 가정에서 기도하고 공부하는데 꼭 필요한 책상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익혀 자신은 물론 가족 모두가 불자가 되는 처음 시작하는 책상.

▶ 편백나무 경상

▶ 접은 상태

▶ 접이식 고급 경첩

- 재질 : 편백나무
- 크기 : W60cm × D40cm × H28cm
- 특징 : 고급 접이식 경첩을 고정하여 사용이 편리합니다.
- 가격 : 개당 6만원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4
-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 孝 불경 라디오成佛

불경과 라디오를 하나로!!!

언제 어디서나 불자의 기도, 각종 염불, 찬불가를 간단한 조작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등산, 산책, 모임, 법회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 일반 가요 듣기도 가능합니다. (USB 포트에 가요데이터 삽입)

**사용설명**  
원하는 번호를 누르면 해당 불경이 바로 나오고, 불경 SD카드를 빼시면 라디오로 전환됩니다. (자세한 설명은 사용설명서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제품구성**  
가로 13cm × 세로 6cm × 두께 2cm + 4GB 불경SD카드 + 이어폰 + 1200AM 배터리 + USB 충전케이블 + 충전아답터 + 불경목록 + 사용설명서

● 가격 : 6만원 (발송비 포함) / 정색, 홍색 2컬러

\* 스님들께서 불자들에게 드리는 선물로도 더욱 좋습니다. (100개이상 구입 시 사찰명 별도 표기에 드립니다.)

www.hyunbulshop.com  
구입처 : 현대불교현불샵 02)2004-8214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

■ 불경목록 (음원 저작권 협의)

□ 정현의 삶을 위한 기도

1. 불자의 기도
2. 불자의 기도
3. 가나 평안을 위한 기도
4. 병아 쾌유를 위한 기도
5. 명상음악
6. 행복한 가정을 위한 기도
7. 자녀를 위한 부모의 기도
8. 생일의 기도
9. 장영의 기도
10. 자비의 기도
11. 자비를 머무는 곳에
12. 반송으로 왔다가
13. 사랑을 품 때는
14. 여름 발레는 겨울이 있을을
15. 가난은 죄가 아니요
16. 마음이 머무는 곳에
17. 시간이란 누구에게나
18. 향수를 바라보면
19. 남의 마음을 꾸짖는 마음으로
20. 일시에 분을 점으면

□ 항공스님의 염불시리즈

1. 광명진언 1
2. 광명진언 2
3. 개경계
4. 지경공덕분
5. 예불문
6. 아산 해원선사 발원문
7. 천수경
8. 반야심경
9. 화엄경 익찬계
10. 법성계
11. 참선곡
12. 우리말 반야심경
13. 관음경

□ 찬불가

34. 삼귀의
35. 찬양합니다
36. 예불가
37. 참법가
38. 불교의 노래
39. 새 법우 환영가
40. 부처님께 기원합니다
41. 부처님께 바칩니다
42. 사찰서원
43. 산회가
44. 관세음의 노래
45. 보현행원
46. 갈로법을 전하자
47. 초파일의 노래
48. 마하반야의 노래
49. 성도제의 노래
50. 우리도 부처님 길이
51. 홀로 피는 연꽃
52. 관세음보살 1악장
53. 관세음보살 2악장
54. 개경계
55. 이상정명분